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 정리
(2025년 6월 16일 시행)

일비스 변리사 학원
변리사 김 웅

1. 공업상 이용가능성 관련(제33조 제1항 본문)

기존	현행(개정)
<p>재질 또는 크기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으로 본다.</p>	<p>기존과 동일. 다만, 아래와 같이 심사관 참고사항을 추가함.</p> <div data-bbox="1137 376 1910 59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심사관 참고]</p> <p> 인정 재질, 크기, 사용목적,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도, 심사관이 도면을 보고 출원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p> </div>
<p>기존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재질 등에 관한 설명이 없으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은 재질 등에 관한 설명이 없더라도 도면만으로도 디자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임.</p>	







2.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36조)

기존	현행(개정)
<p>1. 출원 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증명서류는 등록여부결정 시까지 제출가능하며 미제출 시에는 별도의 불인정 예고통지 없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p> <p>2. 증명서류는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제출가능한데, 보정서를 통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했으나 증명서류가 미제출되면 별도의 불인정 예고통지 없이 신규성상실예외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p>	<p>1. 기존과 동일. 다만 출원인·대리인의 실수 등으로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불인정 예고통지를 할 수 있다. 예) 출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란 아래에 인터넷 주소(URL 링크), 디자인의 형태, 공개일 등을 기재한 경우</p> <p>2. 기존과 동일. 다만 출원인·대리인의 실수 등으로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불인정 예고통지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p>
<p>기존에는 출원시 또는 보정시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예고통지 없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지만(즉, 자기 공지로 신규성 또는 창작비용이성 흠결로 거절),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은 불인정 예고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및/또는 증명서류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p>	

3. 관련디자인(제35조)

기존	현행(개정)
<p>1.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었음.</p> <p>2. 기본디자인이 등록결정 전이거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은 등록결정할 수 없다. 또한 등록결정한 기본디자인이 수수료 미납 등으로 취하되고 관련디자인만 설정등록 될 경우 관련디자인은 단독디자인으로 변경되어 등록된다.</p>	<p>1. (다음 내용 추가)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은 원칙적으로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면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예) 다음 사례와 같이 기본디자인은 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이고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은 피부마사지기의 부분디자인으로,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문자부분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므로 관련디자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본디자인이 부분디자인이고 관련디자인이 전체디자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p> <div data-bbox="1137 635 1926 1045" data-label="Image"> </div> <p>2. 기본디자인이 등록결정 전이거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은 등록결정할 수 없다. (삭제)</p>
<p>1. 기존에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보호범위 및 출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 디자인심사 기준은 비록 형식적으로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이지만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예: 파선 부분)이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전체디자인과 전체디자인으로 보일 경우 유사하다고 보아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p> <p>2. 원칙적으로 기본디자인이 등록결정되더라도 설정등록되지 않으면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또한 등록결정한 기본디자인이 수수료 미납 등으로 취하되고 관련디자인만 설정등록될 경우 관련디자인은 단독디자인으로 변경되어 등록된다.”는 법리 및 절차상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법리적으로 문제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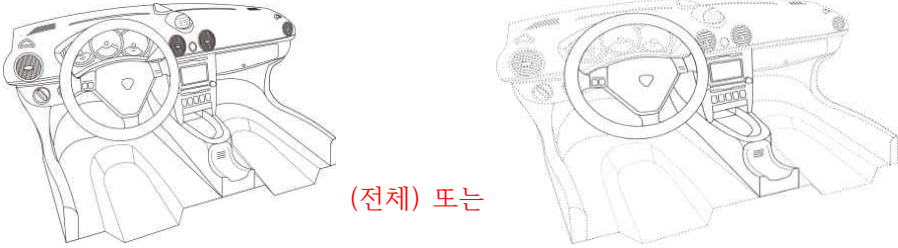
4. 선출원주의(제46조)

기존	현행(개정)				
<p>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았음.</p>	<p>(다음 내용 추가)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은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다음 사례와 같이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피부마사지 중간에 위치한 버튼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므로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피부마사지기의 부분디자인을 출원한 후 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p> <div data-bbox="1111 663 1899 1099">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111 663 1509 699">선출원</th><th data-bbox="1509 663 1899 699">후출원</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111 699 1509 1099">  <p data-bbox="1160 1066 1462 1094">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p> </td><td data-bbox="1509 699 1899 1099">  <p data-bbox="1552 1066 1854 1094">피부마사지기의 부분디자인</p> </td></tr> </tbody> </table> </div>	선출원	후출원	 <p data-bbox="1160 1066 1462 1094">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p>	 <p data-bbox="1552 1066 1854 1094">피부마사지기의 부분디자인</p>
선출원	후출원				
 <p data-bbox="1160 1066 1462 1094">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p>	 <p data-bbox="1552 1066 1854 1094">피부마사지기의 부분디자인</p>				
<p>기존에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보호범위 및 출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없었지만,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은 비록 형식적으로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이지만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예: 파선 부분)이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전체디자인과 전체디자인으로 보일 경우 유사하다고 보아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p>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제40조 제2항)

기존	현행(개정)
<p>1. 실제 거래계에서 물품의 일반화된 명칭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용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용 부재” 등의 명칭도 가능하다. 다만,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없이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은 등록받을 수 없다 예) ㉔ 불인정 창틀용 부재, 건축용 부재</p> <p>2. 물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2항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 2) 입력장치(부적합), 휴대용 문자입력장치(적합)</p>	<p>1. 기존과 동일. 예) 인정 창틀용 부재, 불인정 건축용 부재</p> <p>2. 기존과 동일. 예 2) 입력장치(부적합), 휴대용 문자입력장치(적합), 자동차 내부차체(적합)</p>
<p>1. 기존에는 창틀용 부재가 불인정 명칭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임. 따라서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은 이를 정정함.</p> <p>2. 기존에는 실무상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던 “자동차 내부차체”라는 물품명칭을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은 인정함을 명확히 함.</p>	

6. 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기존	현행(개정)
<p>자동차 내부차체의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의 1디자인 여부가 불분명했음.</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1물품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결합상태로 보아 각 물품의 기능·용도가 상실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능·용도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 3.1 및 3.2에서 예로 든 물품에 준하여 결정한다. (이하, 1물품 인정 사례로 “자동차 내부차체의 ”전체“디자인을 추가)</p> <p>1부분디자인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형태적 일체성 중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지만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하, 1부분디자인 인정 사례로 “자동차 내부차체의 “부분”디자인을 추가)</p>
<p>기존에는 자동차 내부차체(내부 인테리어)의 디자인의 성립요건, 1디자인, 도면 표현 등 여러 쟁점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나,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은 자동차 내부차체의 전체디자인(일종의 자동차 부품)과 부분디자인을 모두 1디자인으로 인정함.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동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품(방갈로, 조립가옥, 이동화장실 등)의 내부장식도 1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p>	

7. 정당권리자출원(제44조 및 제45조)

기존	현행(개정)
<p>정당권리자출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p>	<p>1 취지</p> <p>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p> <p>또한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설사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취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p> <p>즉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에 소급하는 것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발생 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p> <p>2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요건</p> <p>2.1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무권리자의 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전에 있었어야 하고, ② 그 무권리자의 출원이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되어야 하며, ③ 정당한 권리자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을 해야 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부가 출원해야 한다.) ④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출원 후부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가능하고, 그 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출원을 해야 하며, ⑤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디자인과 무권리자가 한 출원의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p> <p>2.2 심사관은 2.1.③의 정당한 권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 관련 정보제공인, 무효심판 청구인, 거절결정서 내용, 심결문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p> <p>3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시기</p> <p>정당한 권리자가 소급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출원 후부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가능하고, 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출원을 해야 한다.</p> <p>4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방법</p> <p>정당한 권리자는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도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권 증명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5 정당한 권리자 출원 소급효의 불인정</p>

	<p>5.1 소급효 불인정 절차</p> <p>5.1.1 상기 ① ~ ⑤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대한 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5.1.2 불인정예고통지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p> <p>5.2 불인정의 효과</p> <p>5.2.1 정당한 권리자 출원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은 실제 출원이 있었던 때에 출원한 것으로 취급한다.</p> <p>5.2.2 상기 ① ~ 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 실제 출원은 반려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소급효 없는 출원으로 보고 실제심사를 진행한다.</p> <p>5.2.3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출원 전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이를 근거로 무권리자 출원을 등록거절을 할 수 있다.</p> <p>6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효과</p> <p>6.1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출원일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사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그 사이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거절 결정이 되지 않는다.</p>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요건, 소급효 인정 여부 등 명확한 기준으로 신설함.	

8. 헤이그 국제출원 관련

기존	현행(개정)
<p>1.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계약당사자 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소정의 형식요건 심사를 거쳐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u>6개월</u>이 되는 날 공개한다.</p> <p>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u>6개월</u>이 되는 날 공개되나, 추가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최대 30개월까지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p> <p>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등록일”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보고 신규성 예외주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증명서류는 국제출원시 그 취지를 기재한 경우 “<u>국제등록공개일</u>”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p> <p>4. 국제등록출원된 복수디자인들 간에 상호 유사한 디자인이 있을 경우, 동일자에 동일인이 출원한 것이므로 <u>선택요구서와 함께</u> 법 제46조에 의한 거절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기본 또는 관련디자인으로의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등록결정한다.</p>	<p>1.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계약당사자 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소정의 형식요건 심사를 거쳐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공개한다.</p> <p>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공개되나, 추가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최대 30개월까지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p> <p>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등록일”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보고 신규성 예외주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증명서류는 그 취지를 기재한 경우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다.</p> <p>4. 국제등록출원된 복수디자인들 간에 상호 유사한 디자인이 있을 경우, 동일자에 동일인이 출원한 것이므로 선택요구서와 함께 법 제46조에 의한 거절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기본 또는 관련디자인으로의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등록결정한다.</p>
최근 개정 디자인보호법과 헤이그 협정내용을 반영함.	